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6일 월요일 음 12월 7일 (14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9°C, 낮 최고기온은 10-12°C로 예상된다. 오후부터는 강풍이 일겠으니 풍량을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5/9°C, 모레 흐리고 비 6/9°C

월드뉴스

젤렌스키 “이틀 새 북한군 1개 대대 전멸”

북·러군 ‘인해전술’ 이어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이 불과 이틀 사이에 1개 대대가 전멸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했다.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병사들. 연합뉴스

북한은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 1000명의 병력을 파견했지만, 낮은 환경과 지원 부족 속에서 총알받이로 내몰려 큰 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군의 잠정에 힘입은 러시아군은 다수의 사상자를 감수하고 병력을 거듭 투입하는 인해전술 방식으로 치전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붙이고 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진선희 제2사회부국장 겸 서귀포지사장

“그것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다. 짐승도 그런 폐죽음은 없다.” (현기영의 ‘쇠와 살’ 중에서) 오래전 제주에서 “너무도 불가사의”한 대참사가 있었다.

제주4·3 60주년이 되던 해인 2008년이었다. ‘4·3문학의 현장’이란 제목으로 현기영의 ‘순이 삼촌’에서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까지 제일 작가를 포함 24명이 쓴 작

훼손되지 말아야 하는 이름들

품의 배경을 찾아다니는 적이 있다. 2007년 말부터 시작한 여정은 이듬해 10월에 끝이 났다. 변변찮은 기사였으나 작가별 한 편씩을 중심으로 30회 넘게 연재하는 동안 제주 4·3을 작품으로 품었던 이들이 느꼈을 고통이 전해졌다.

묵은해의 마지막 달에 일어난 일로 그 시기에 둘러싸였던 해안가, 오름 등 제주 곳곳의 유적지들이 새삼 떠올랐다. 70여 년 전 제주 섬에 닥쳤던 계엄이란 용어가 다시 등장하면서다.

“제주4·3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계엄령은 주민 희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전의 희생이 비교적 젊은 남자로 한정된 반면, 계엄령이 선포된 1948년 11월 중순경부터 벌어진 강경진압작전 때에는 서너살 난 어린이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총살당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2003년 펴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중 일부다. ‘계엄령 선포’ (276~286쪽) 항목을 따로 둔 이 보고서는 “계엄령은 제주도민들에게 재판 절차도 없이 수많은 인명이 즉결처형된 근거로 인식돼 왔다”고 했다.

국가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랐으나 1948년 제주에 이어 1980년 광주도 계엄의 비극을 겪었다. 한강의 장편 ‘소년이 온다’에는 소설 속 ‘나’가 “2009년 1월 새벽, 웅산에서 망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속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저건 광주잖아”라고 말이다. 그러곤 이런 대목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아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동안 직간접으로 체험한 역사는 우리에게 개개인의 생명과 인권이라는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다는 점을 일깨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주시청 일대만이 아니라 서귀포 도심에서 시민들의 응원봉 불빛이 켜졌던 이유일 게다. 기억과 연대의 마음으로 거리의 어둠을 밝히는 빛들은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2025년의 첫 해가 떠오른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2024년 선달이다. 심적으로도 그러지 않겠나. 한 해가 저물 무렵엔 여객기 사고로 막대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며 너무나 크나큰 슬픔 속에 이 겨울을 앞두고 있다. 칼바람도 때가 되면 봄바람으로 바뀐다는 자연의 이치에 기대어 새해의 안녕을 기원해 본다.

열린마당

선지후행(先知後行), 경청과 공감



안이정 제주시 안전총괄과

얼마 전 사업에 대한 불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통화를 이어가던 중 민원인은 상급자와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상급자와 대화를 통해 우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 통화를 종료했다.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다. 그 민원인은 왜 나와의 대화를 거부했던 것일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와 상급자는 민원 응대 방식이 전혀 달랐다. 내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

익사업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면서, 행정의 입장만을 내세운 방식으로 소통했기 때문에 민원인은 나와의 대화에 불통을 호소했던 것 같다.

반면에 상급자는 행정의 입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민원인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불편함과 장기적인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심정을 알아채고 공감을 표현하면서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공감의 소통을 했던 것이다.

‘선지후행(先知後行)’이라는 사자성이 있다. ‘먼저 알고 나서 행동한다’는 말로써,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한다.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민원인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배려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민원내용을 끝까지 듣고,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야겠다.

공직자 청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승창준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공직자는 단순히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공공 자원의 관리와 정책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청렴성은 그 자체로 사회 질서 유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직자의 청렴은 국가기관과 국민의 상호신뢰를 형성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때 국가기관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이 일상화될

때 사회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변화한다.

과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할 때 민원인은 조그마한 답례로 음료 한 병을 건네곤 했다. 감사의 의미로 건넨 음료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 작은 성의도 거절하고 있다. 작은 성의로 건넨 그 음료가 되려 본인에게 예상치 못한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공직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민원인은 공무원에게 어떠한 답례성 물품을 건네지 않는다. 공직자의 사적 유대관계도 형성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공직사회에 조성됐다.

공직자 한 사람이 행한 청렴은 한 사람을 넘어 공직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청렴한 공직자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시민장의사' (City Mayor's Doctor) featuring a doctor's certificate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에코방수' (Eco Waterproofing) featuring a worker applying waterproofing and contact information.